

탄소중립 실천 앞장…달서구, 올해도 도심 곳곳 녹색갤러리 단장

제3차 우리마을 동산가꾸기 행사

대구 달서구청의 '나무 사랑'이 눈길을 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58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마을 동산가꾸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일 오전 대구 달서구 도원근린공원 일대에서 제3차 '우리마을 동산가꾸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도원지 서편 등산로 곳곳에 편백 500그루를 심었다.

달서구청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건강도시 조성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인 '우리마을 동산가꾸기' 사업을 통해 매년 나무 식재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일 한실공원을 시작으로 오는 5월17일까지 달서별빛캠프 일대에서 모두 10차에 나눠 진행한다. 구청 직원과 자원봉사자 1천여 명이 참여해 모두 4천 800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대구 도원지 서편 등산로 곳곳 편백 500그루 심어 눈길

2016년부터 580만 본 수목 식재…매년 3만㎡ 녹지 확대

5월17일까지 달서별빛캠프 일대 4천800그루 식목 계획

달서구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외룡산자락길 편백숲길과 그린 카펫 생활환경 사업을 추진해 도심 곳곳을 녹색 갤러리로 단장하고 있다.

도원지 수발근린공원과 대곡지 일원 산림휴양공원, 국립 치유의 숲 조성 추진으로 휴식공간을 마련해 오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580만여 그루 이상의 수목이 식재됐는데, 이는 53만 달서구민이 매년 1인당 1그루 이상의 수목을 심은 것과 같은 수량이다. 매년 3만㎡의 녹지가 확대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밖에 달서구청은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은 물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그린카펫 사업도 우리마을 동산가꾸기 사업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20일 오전 도원근린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3차 '우리마을 동산가꾸기' 행사에 참여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편백을 심고 있다. 달서구청 제공

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그린카펫 사업은 아파트 담장, 옹벽 등의 인공 구조물을 푸른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이곳에 식물을 식재해 이상 기후를 극복하는 사업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역 곳곳에 자연을 통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도시 숲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해 푸른 달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시, 정비사업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한다

지난 4년간 지적사항 470건 발각
추진상황·민원 고려 10개소 선정
공사계약·용역 등 현장점검 확대

경쟁 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용역 및 공사계약),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없는 예산 총회 결의(조합행정), 자금차입 한도액 및 이율에 관한 총회결의 부존재(자금 유용 및 회계처리). 대구시가 지난 4년간(2021~2024년) 지역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에서 나온 분야별 불법 사례 중 일부다.

대구시는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공

정한 운영을 위해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1~2024년 총 26개 사업장에서 총 47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고발(120건), 수사의뢰(1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명령(37건), 환수조치(21건), 행정지도(260건) 등 440건의 조치를 취했다.

매년 조합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60여 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상황 및 민원 등을 고려해 10곳을 선정했다.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실태 점검 이후 지적 사항의 재발 방

지를 위해 이행 여부 점검을 확대·추진한다.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시범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이 조합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확대와 사례 홍보를 통해 조합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호 기자

달성군청 민원실, 포근한 카페로 대변신

환경개선 작업 통해 노후가구 교체
청사 출입문 '디지털 게시판' 설치도

"대구 달성군청 민원실이 확 달라졌어요"
대구 달성군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민원실을 누구나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했다고 20

일 밝혔다. 앞서 2주간 진행된 환경개선 작업을 통해 노후된 가구와 화단을 교체하고, 테이블과 소파를 재배치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 청사 출입문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홍보용 배너 대신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해 홍보 효과를 높였다.

달성군 민원실은 이미 장애인과 임산부 전용 우선 창구를 갖추고 있다. 북카페와

민원인용 사무공간, 유아 놀이공간까지 마련돼 있어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노력으로 달성군은 2023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군민들이 더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교통공사, 업무전반 AI 시스템 도입

스마트 도시철도 안전 플랫폼 구축
내부검색 시스템 'DTRO AI' 개발도

대구교통공사가 업무 전반에 AI를 접목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구교통공사는 전국 공기업 최초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내부 검색 시스템인 'DTRO AI'를 자체 개발해 3월부터 운

영 중이다. DTRO AI는 △사규 △업무별 매뉴얼 △법령(방침, 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등 4개 핵심 주제로 구성되며 총 12개의 검색 카테고리 제공하고 있다.

종전 담당자 간 전화, 부서간 자료 요청, 관계자 회의 등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DTRO AI'검색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 버전을 개발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출시 예정이다.

도시철도 역사 내부에는 '스마트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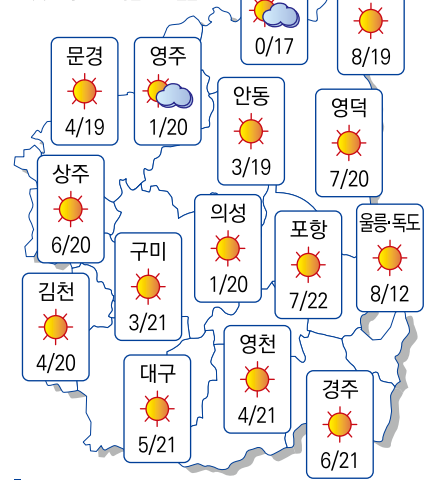
철도 재난 안전 플랫폼'과 'AI 기반 지능형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안전사고 대응에 나섰다. '스마트 도시 철도 재난 안전 플랫폼'은 상인역에 설치돼 있다. 역사 내 화재, 승객 쓰러짐, 침입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역무실 모니터에 관련 영상과 경보가 호출되도록 해 안전 모니터링 업무의 집중도와 정확도를 높인다. 이 결과 사고 대응 시간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다. 이 밖에도 'AI 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을 구축했고, 'AI 기반 3호선 모노레일 전차선로 영상분석 시스템' 도입(2026년 1월부터 현장 적용) 등을 추진 중이다. 김정원 기자

|오늘의 날씨

대구와 경북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날씨(최저/최고)

아침최저 0 ~ 8℃
낮 최고 12 ~ 22℃



|주간예보



|해와 달

해돋이 06:28 해질 18:38 / 달돋이 00:27 달지름 09:50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종류	보통	한때나쁨	나쁨	매우나쁨
지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구	●	●		
경북	●	●		

|전국날씨

도시	최저/최고	도시	최저/최고
강릉	8/18℃	서울	6/17℃
광주	5/19℃	전주	6/19℃
대구	5/21℃	제주	10/18℃
대전	6/19℃	청주	6/20℃
부산	8/17℃	춘천	4/18℃

|바다날씨

해상	풍향	풍속(m/s)	파고(m)
동해	남서-서	8-14	1.0-2.0
남해	남서-서	5-12	0.5-2.0
서해	남서-서	4-10	0.5-1.5

|생활지수

운동 70	대체로 좋아요
빨래 90	빨래 하기 좋은 날
세차 100	세차 후의 상쾌함을 느껴보세요
우산 00	우산 없이도 좋아요
난방 10	필요 없어 보입니다
수면 90	쾌적한 수면입니다

프로야구 개막 다중운집 대비 대구경찰, 라팍 현장점검 실시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20일 KBO 프로야구 개막전이 펼쳐지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아 내·외부 현황 등 종합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16면**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 배치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순찰 활동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병행, 많은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막전 경기

에 대해 입체적인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현장 점검 시 삼성 라이온즈 측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하고 응원 열기 또한 뜨거운 만큼 시설물 보강 등 자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관람객이 많이 이용하는 3루 게이트 및 지하철 출입구 등도 점검하면서 "경기 종료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주철 측과 경찰 간 유기적인 협조 아래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호 기자